

광주문화재단 '코로나 시대 지역 문화정책 변화 방향' 간담회

# “광주형 온라인 플랫폼 구축해야”

문화예술분야 전문가 17명 위원  
“온라인 활용 콘텐츠 제작방안 강구”  
“다수의 예술인들 실질적 지원 필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광주형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공공재로서의 문화적 데이터를 공유하는 생산적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주장은 코로나19로 문화예술계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향후의 창작환경과 문화 정책을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김윤기)은 최근 ‘코로나 시대 지역 문화정책 변화 방향’ 간담회를 열었다.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는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로부터 2021년도 정책적 전환과 대응 방향을 듣는 자리였다. 김진아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교수, 최영화 호남대 교수 등 모두 17명 위원이 참여했다.

김혜경 소촌아트팩토리 센터장은 “기존의 계약적 성과에 무게중심을 둔 지원은 향후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도 “콘텐츠가 중구난방으로 소비되는 현상을 지양하기 위해 광주형 온라인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의 유튜브로 대변되는 온라인 콘텐츠 유통 구조는 휘발성이 강하다”며 “공공재로서의 문화적 가치를 고민하고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생산적 토대를 만드는 것이 재단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코로나 상황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기에 유연한 사업계획을 세우는 것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진아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교수는 “행사의 성격에 따라 온라인네트워크(유튜브 포함) 등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 방안도 사전에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얼마 전 실시한 예술배너(300명 지원)와 같은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



지난 5월 무관중으로 진행된 '풍류달빛공연' 모습.

다. 추말숙 문화예술공동체 연나무 대표는 “개인 지원 개념의 예술배너는 프로젝트 취지도 좋은데다, 실제적인 결과물을 볼 수 있어 좋았다”며 “향후에는 사전에 많은 예술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기간뿐 아니라 실질적인 지원 규모를 늘렸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화경 소설가도 지원 규정의 문턱을 낮춰 다수의 예술인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작가는 “재단이 중심이 돼 효율적으로 원격제어 솔루션을 마련했으면 한다”면서도 “한편으로 창작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확장할 수 있는 기술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코로나가 전지구적 환경변화와 연계돼 있기에, 문화예술 콘텐츠로의 전이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일테대 빅데이터, 신경망 알고리즘, 나노 과학 등 순수과학 기술을 문화예술 콘텐츠와 융합한 프로젝트를 활발히 추진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기형 아시아문화원 팀장은 “태양, 달, 오로라, 무지개 등 인공자연을 매개로 한 신 분야 프로젝트를 모색할 필요도 있다”며 “인공자연 프로젝트는

기존의 전시 관람 형태가 아닌 각각의 공간에서 거리두기를 하며 진행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사실 지금의 비대면 방식(온라인 콘텐츠 제작)이 기대만큼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김혜일 문화공동체 아우름 대표는 “기존의 불특정 다수 니즈를 충족시키는 방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과정과 깊이가 서로에게 의미 있는 경험으로 자리매김되는 프로젝트 발굴과 지원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임인자 독립서점 ‘소년의 서’ 대표는 문화예술 생태계에 대한 설계와 고민을 역설했다. 임 대표는 “향후 재단은 예술계의 건강한 소통과 환류를 위해 플랫폼으로 가능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뒀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이이남 미디어아티스트는 “입체적이며 리얼리티를 기반으로 한 가상현실의 재조명”, 배미경(주) 더킹핀 대표는 “거리두기 기반 소규모화 시즌제, 예약제 도입”, 김태환 광주과기원 교수는 “문화정책 강화 및 전문 예술인 직업 지원 기획” 등을 제시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영화관 속 박물관

16일부터 CGV광주터미널점서 ‘루브르박물관 기획특별전’

‘아름이 깔린 밤, 루브르 박물관이 영화관으로 들어온다.’

루브르 박물관을 구석구석 둘러보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역작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도슨트 투어를 극장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루브르박물관 기획특별전’이 오는 16일(오후 4시20분-6시30분)부터 CGV광주터미널점에서 열린다.

이 특별전은 폐장 후 고요한 루브르에서 도슨트의 설명을 들으며 작품을 감상하는 프라이빗 도슨트 투어다큐멘터리다.

특히 다빈치가 작품에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 어떤 회화 기법을 사용했는지 등을 다각도로 촬영한 화면으로 만날 수 있다. 대표작 ‘모나리자’부터 ‘라벨 페르니에르’, ‘바위산의 성모’, ‘마돈나와 꽃을 든 아기 예수’ 등의 작품을 다룬다. CGV광주터미널점은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78석만 오픈한다. 티켓 가격은 1만3000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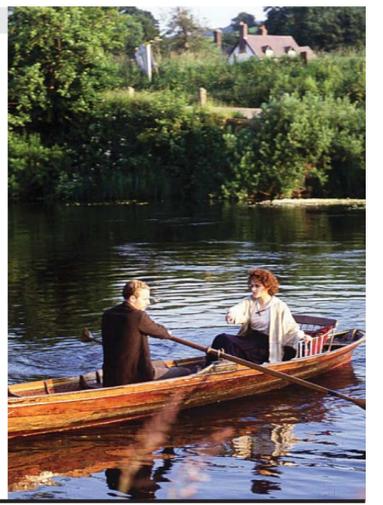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 ‘하위즈 엔드’
- ‘테스와 보낸 여름’
- ‘드라이브’
- ‘도망친 여자’
- ‘공포분자’
- ‘해피 아워’



10~17일 6편 상영



## 코로나에 지친 이들을 위한 ‘희망을 그리는 시간’

전남문화재단, 25일까지 화순전남대병원서 전시회

전남문화재단(대표이사 주순선)이 오는 25일까지 화순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희망을 그리는 시간’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지속된 코로나19 영향으로 지친 의료진과 도민들을 응원하고, 평범한 일상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시 작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창작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작가들의 창작 의지를 높이기 위해 추진한 ‘예술작품 멤버십 렌트사업’ 공모 출품

작으로 구성했다.

참여 작가는 강근선·김미숙·서지영·정정에 등 4명이며 모두 24점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전시 작품은 남도사이버갤러리(www.namdogallery.or.kr)를 통해서도 볼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구매도 가능하다.

재단은 전시 작품을 담은 도록을 힐링컨설팅 컬러링북 형태로 제작해 병원의료진, 입원 환자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정정에 작 '너를 기다리는 동안 3'

## ‘성희롱·인권침해’ 광주시립극단 진상규명·책임자 처벌 촉구

광주지역 문화·시민단체들이 광주시립극단의 성희롱, 노동인권침해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위원회를 구성하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광주여성단체연합회·(사)광주민족예술인단체총연합 등 ‘광주시립극단

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이러한 문제를 고발한 피해 당사자들에 대한 2차 가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시립극단 상임단원의 상습적인 폭언과 인격모독, 불공정 계약 중용, 부당한 업무지시, 무대감독의 상습적인 성희롱, 안전대책 미비로 인해 연습과정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가해자를 엄중히 징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은재 기자 ej6621@

## 세계 영화제 수상 영화들 광주극장서 만끽

칸국제영화제, 베를린국제영화제 등 세계 유수의 영화제에서 상을 수상한 영화들이 잇따라 개봉한다. 광주극장은 10일부터 17일까지 제65회 아카데미상 수상 3편을 받은 ‘하위즈 엔드’ 등 6편을 선보인다.

10일 개봉하는 ‘하위즈 엔드’는 20세기 초 영국의 보수적인 사회에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사랑과 자아를 찾는 마거릿과 헬렌, 두 자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제임스 아이보리 감독이 제작과 연출을 맡았으며, 제65회 아카데미상에서 여우주연상, 각색상, 미술상을 받았다.

같은날 개봉하는 ‘테스와 보낸 여름’은 네덜란드의 아동문학가 안나 왈츠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스티븐 바우터루드가 연출을 맡았다. 4차원 소년 샘이 우연히 만난 소녀 테스와 보내는 특별한 여름휴가를 담고 있다. 제69회 베를린국제영화제의 제너레이션 K플러스 부문 국제심사위원 특별 언급상을 비롯해 전 세계 영화제 통산 16개 부문을 수상했다.

10일 재개봉하는 영화 ‘드라이브’는 할리우드 액션 영화로는 이례적으로 제64회 칸 국제영화제 감독상을 받은 작품이다. 니콜라스 윈딩 레픈 감독이 스틸라적인 감성과 로맨틱한 분위기를 영상으로 전달해 화제를 모았으며 라이언 고슬링과 캐리 멀리건이 출연한다.

‘도망친 여자’ (17일 개봉)는 제70회 베를린국제영화제에서 은곰상 감독상을 수상한 홍상수 감독의 24번째 장편영화다. 결혼 후 한 번도 떨어져 지낸 적이 없었던 남편이 출장을 간 사이, 과거 세 명의 친구들을 만나게 되는 ‘감히’를 따라간다. 김민희를 비롯해 서영화·송선미·김새벽·권해효 등이 출연한다.

1986년 개봉한 영화 ‘공포분자’는 34년만에 관객들과 다시 만난다. 소녀의 장난 전화 한 통이 불러온 네 남년의 기묘한 파장과 비극을 그린 이 작품은 개봉 당시 금마장 영화제 최우수작품상을 등 세계 유수 영화제를 휩쓸며 작품성을 인정 받았다.

상영일이 한차례 연기됐던 원데이 시네마 두번째 상영작 ‘해피 아워’ (317분)는 12일 오후 1시 40분 상영된다. 작품은 평범한 일상에서 아름다운 순간을 포착하는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의 작품으로 친구의 비밀을 계기로 인생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가는 이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주연 배우 네 명이 로카르노영화제에서 최우수여배우상을 함께 수상하며 화제가 됐다.

문의 062-224-5858.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 옥상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 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

**광주·전남**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같이 하실 분 모십니다.